

어린이 전염병 조심!

더운 날씨가 시작됨에 따라 어린이 관련 전염병이 돌 수 있습니다.

해마다 어린이들의 불청객인 바이러스성수막염, 수두, 수족구(手足口)병 등이 확산됩니다. 한 때 메르스의 출현으로 우리들을 초긴장하게도 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수족구는 3~4일 가량 지나면 자연 치유되는 만큼 그 동안 아이를 편안하게 해주면서 탈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10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자주 일어나는 바이러스성 수막염은 처음에는 감기 기운이 있다가 갑자기 고열이 나면서 머리가 몹시 아프고 토하는 증상을 보입니다.

수두는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발진과 물집이 온 몸에 생기는 바이러스감염 질환으로, 주로 5~9세 아이에게 발병하고 전염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르스는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 외에도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비누로 손을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는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아야 하며, 기침할 때는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리고, 발열이나 기침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병들이 발견되면 좋아질 때까지 단체 활동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예방법은 외출 후 반드시 세수를 하고 환자와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유아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 가정에서는 청결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